

누가복음19:11-27 / 제자의 자세

1.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이다.

13절 “그 중 열을 불러 은화 열 브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 하라 하니라”

왕은 자기 종들에게 돈을 주고 떠나갔으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유로이 쓰고 또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맡겨 주었었다. 그는 시끄럽게 간섭하지도 않았고 감시하지도 않았다. 그는 전적으로 그들의 재량에 맡기고 떠나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시는 방법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해서 하고싶은 대로 맡겨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 주신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부터 시작된 하나님의우리에 대한 기본 자세였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뢰라는 것이 있었다. 믿고 맡기는 관계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믿어주는 것 만큼 큰 기쁨은 없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2.우리에 대한 시험이다.

이 시험은 능력을 평가가 아니라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보기 위함이다.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받을 때 부터 이긴 기본이 나뉠수 있는 설정입니다. 심리적으로 난 별로 안알아 주는구나, 난 이 정도밖에 기대하지않는구나 라는 심리적인 위축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의 비유는 동일하게 같은 금액을 준것이 특징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미리 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이 기회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종들의 자세 내지는 태도를 보고자 하는 왕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마 왕은 그동안 처져 있는 종들이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자신감을 갖게 해줄 깊은 속뜻이 있지 않았을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믿어주시면서 다시 회복할수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까?

3.왕의 보상입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한 동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차지하라”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충실한 종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즐기게 하는 보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주는 서부여행권이나 유럽 여행권이 아니다. 첫째 좋은 열 고을의 권세를 주었고 다른 종은 다섯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훌륭하게 일한 보수는 보다 더 중대한 일을 맡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최대의 찬사는 그에게 더 크고 더 어려운 중책을 맡기신다.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상은 보다 더 큰 위탁이다. 소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이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싶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일이 작은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쥐도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신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 / 213.505.4889(목사관)